

## 세계적 전쟁가능성 및 대북한 국민의식

### ■ 핵심 주변국가가 세계에 미칠 영향

- \_ 국가호감도, 미국 '호감' / 일본·중국 '비호감'
- \_ 성/연령별 호감도 변화 : 2022년과 큰 차이 없어
- \_ 향후 세계에 미칠 영향, 미국만 '좋은 영향' 우세

### ■ 세계적 전쟁 가능성

- \_ 세계대전, '발생할 것' 39% vs '발생 않을 것' 61%
- \_ 중국, 일본 모두 '군사적 위협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
- \_ 중국·일본의 '군사적 위협'과 '세계 미칠 영향' 밀접

###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생각

- \_ 북한의 군사적 위협, '위험하다' 73%
- \_ 향후 북한 군사적 위협, '완화될 것' 낮아
- \_ 한반도 전쟁 '발발 할 것' 의견, 소폭 높아져
- \_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는 방법, 강온 의견 지속 팽팽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6월 9일(금) ~ 6월 11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5\%$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핵심 주변국가가 세계에 미칠 영향

### 국가호감도, 미국 '호감' / 일본·중국 '비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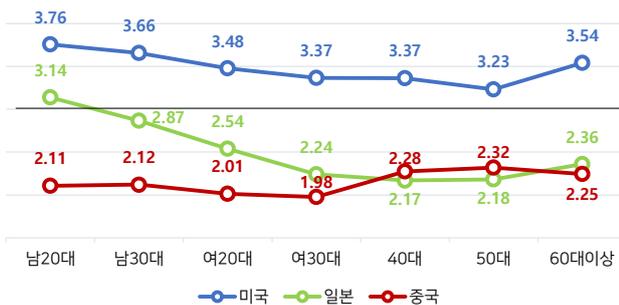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의 핵심 주변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호감'(3.46점)이고, 일본과 중국은 '비호감'(각각 2.42점, 2.18점)인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다음 각각의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계세요?"라는 질문 후 '전혀 호감이 안간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호감이 간다' 5점을 기준으로 응답토록 한 결과임
- 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미국은 소폭 하락하고, 일본 거의 비슷했으며, 중국은 소폭 상승함

핵심 주변국가 호감도(2023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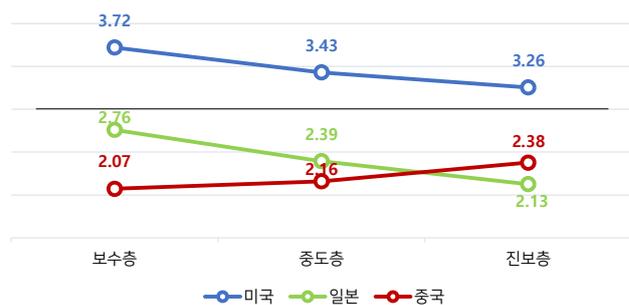


- 2023년 호감도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모든 계층에서 3점(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한 데 비해, 중국은 모든 계층에서 2점 대의 낮은 호감도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일본은 남자 20대에서 유일하게 3점 이상(3.14점)을 기록하고, 다른 모든 계층에서는 낮았음

핵심 주변국가 호감도(2023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점)



핵심 주변국가 호감도(2023년)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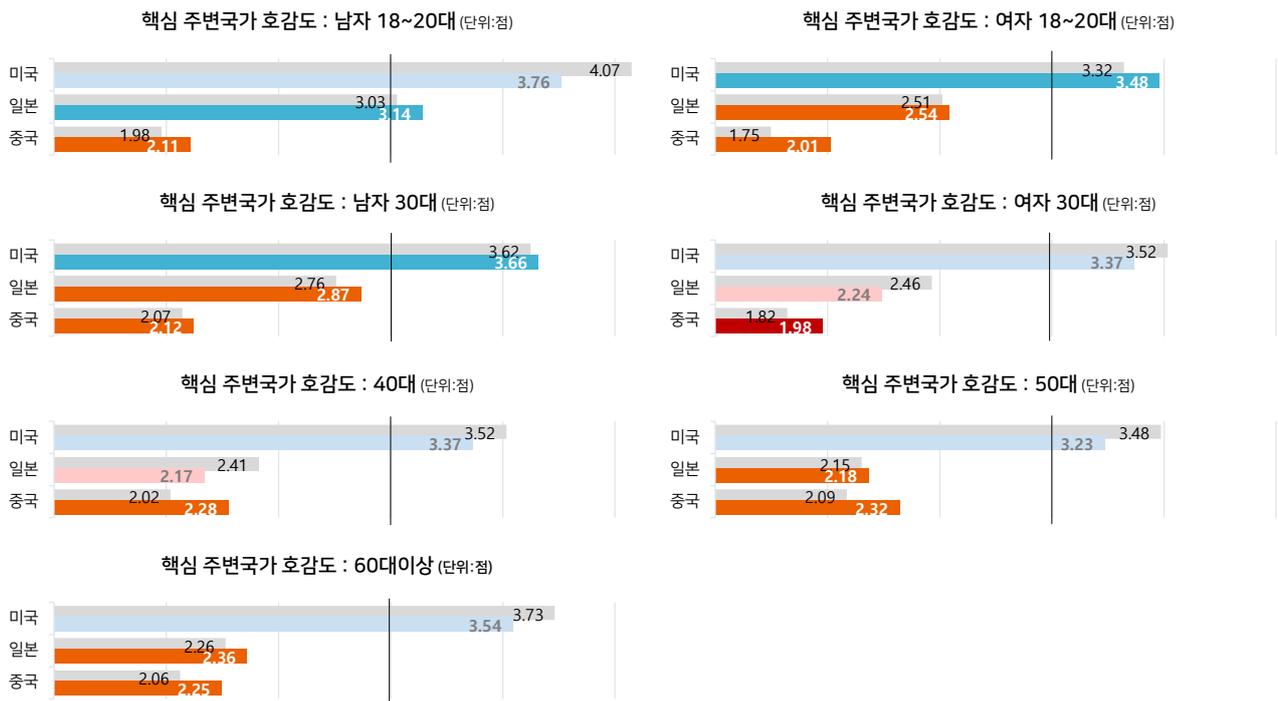


#### Kstat Point

- ☑ 미중 패권 경쟁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우호적이고, 중국에 부정적임 : 이는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국민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됨
- ☑ 다만,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때,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임 :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41%이고,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때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56%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76호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나라 행보 관련 국민의식』 참고)
- ☑ 한편, 일본에 대한 국민 호감도는 중국보다 높지만 2.42점으로 '비호감' 상황임 : 2023년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섰다지만 호감도 변화가 없어, 국민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성/연령별 호감도 변화 : 2022년과 큰 차이 없어

- 핵심 주변국가에 대한 2022년 호감도와 2023년 호감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수치는 2022년 호감도임
  - 2023년 호감도가 2022년보다 상승한 경우 짙은 색으로 표기했으며, 푸른색은 3점 이상, 붉은색은 3점 미만임
  - 또한 검은 세로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모든 성/연령에서 미국은 2022년, 2023년 연속 '3점'(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한 데 비해, 일본과 중국은 2년 연속 2점 대의 낮은 호감도를 유지함
  - 20대 남자의 경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유일하게 '3점'(보통)보다 높는데, 이 역시 2년 연속 동일함
- 다만, 중국은 2022년에 비해 모든 성/연령대에서 호감도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보다 높은 호감도를 보인 성/연령대도 있음
  - 40대와 50대는 2022년에 중국보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으나, 2023년에는 중국 호감도가 소폭 더 높아짐
  - 그외 성/연령대에서는 중국보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



### Kstat Point

- ☑ 성/연령별 호감도에 있어 미국은 차이가 없으나 일본과 중국은 차이가 있음
  - : 2030세대와 60대이상은 중국보다 일본에 호감을 갖는 데 비해, 4050세대는 중국에 더 호감을 갖고 있음
- ☑ 이러한 차이는 2023년에 나타난 것으로, 4050세대의 핵심 주변국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보임
  - : 먼저, 4050세대의 미국 호감도가 하락했는데, 이는 2023년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보임
  - : 또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소폭 상승한 것은, 2023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매달 적자를 기록 중이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하락한 점이 강조된 영향으로 분석됨

## □ 향후 세계에 미칠 영향, 미국만 '좋은 영향'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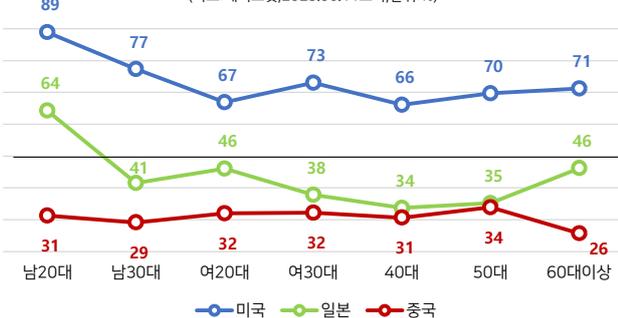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향후 세계에 미칠 영향에 있어, 미국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미국은 '좋은 영향'이 72%로 매우 우세하고, 중국은 '나쁜 영향'이 63%로 우세했으며, 일본은 '좋은 영향' 42% vs '나쁜 영향' 48%로 의견이 팽팽함
- 미국은 2020년에 '나쁜 영향'이 우세했으나, 2021년과 2023년에는 '좋은 영향'이 크게 우세함
  - 이는 2021년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영향으로 보임
- 일본과 중국은 2021년까지 '좋은 영향' 비중이 10%대 초반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크게 상승함
  - 일본은 42%까지 높아졌고, 중국도 30%까지 높아짐

향후 20년 세계에 미칠 영향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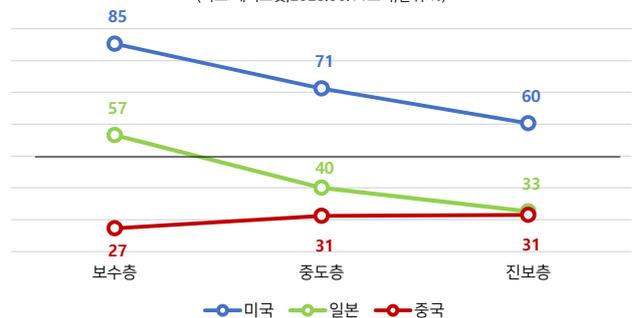


- 2023년 결과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모든 계층에서 '좋은 영향'이 절대적으로 높고, 중국은 낮은 수준을 기록함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50% 기준선임)
- 일본은 모든 계층에 걸쳐 중국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향후 2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전망율(2023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향후 2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전망율(2023년)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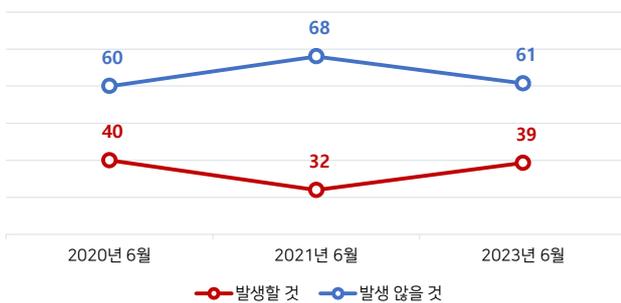
- ☑ 향후 세계에 미칠 영향력 전망에서 일본과 중국은 2023년 들어 '좋은 영향' 의견이 크게 상승함
  - : 이는 2023년 들어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일본의 경우 국가 호감도가 낮아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 의견이 높은 점이 주목됨
  - : '반일감정'이라는 부정적 정서와 한미일 동맹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계적 전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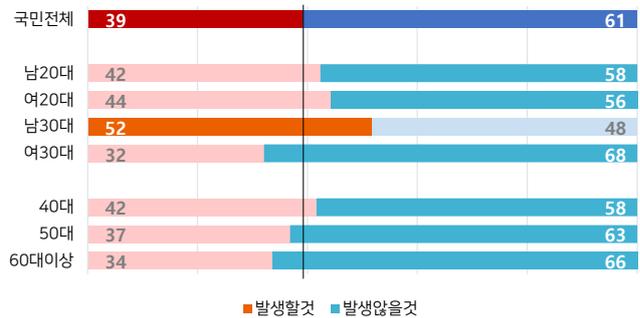
### □ 세계대전, '발생할 것' 39% vs '발생 않을 것' 61%

-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 국민 중 61%가 세계대전이 '발생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39%에 달함
  - "선생님께서 앞으로 20년 안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강대국이 연관된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지난 결과와 비교하면 2021년에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감이 하락했으나, 2023년에 다시 증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발생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60대이상 △서울 △주부 등임
-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가 유일함
  - 상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여자 20대 △호남, TK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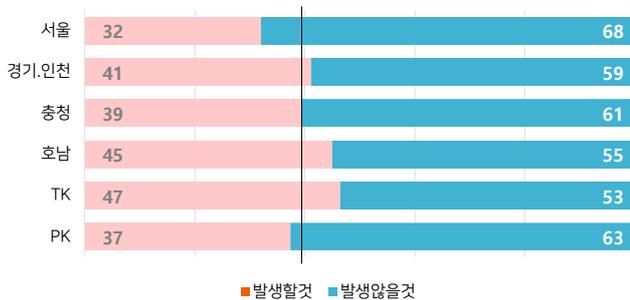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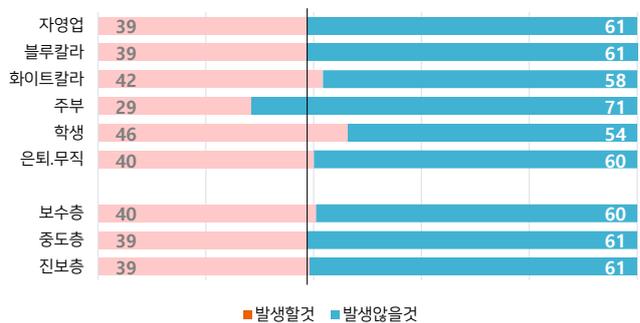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 직업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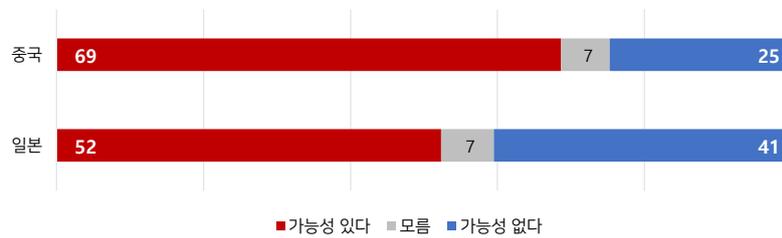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최근 동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계속 보도되는 등 세계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더욱 자극함
- ☑ 우리 국민들 역시 세계적인 전쟁 가능성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감이 '외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 중국, 일본 모두 '군사적 위협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

- 우리 국민들은 향후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6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가능성 없다' 25%, '모름' 7% 등임
-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52%로 우세함
  - '가능성 없다' 41%, '모름' 7% 등임

향후 한국에 군사적 위협될 가능성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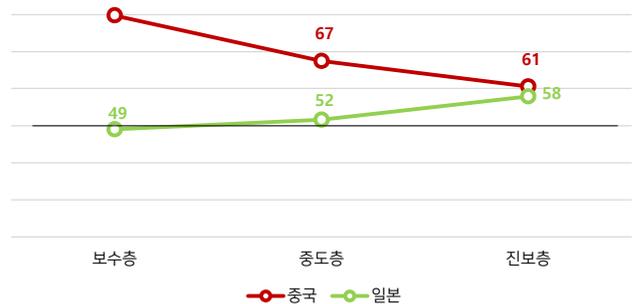


- 계층별로 군사적 위협 '가능성 있다'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모든 계층에서 50%를 상회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50% 기준선임
- 일본은 계층별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가능성 있다'는 비중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4060세대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등임
  - 이에 비해 '가능성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대 등임

한국에 군사적 위협, '가능성 있다' 응답률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한국에 군사적 위협, '가능성 있다' 응답률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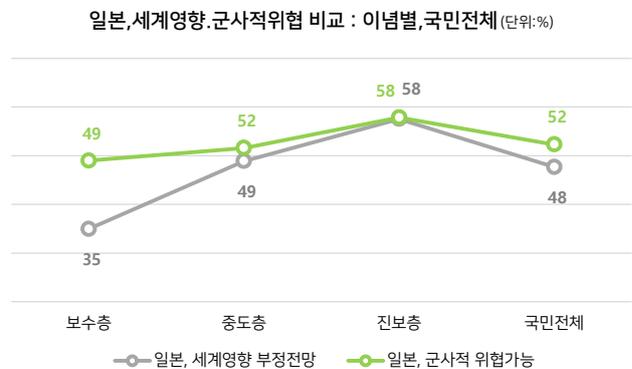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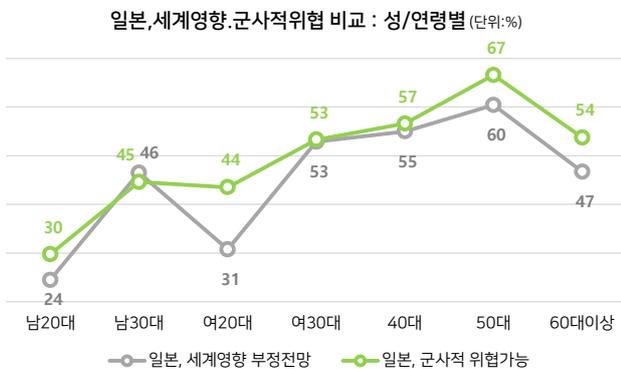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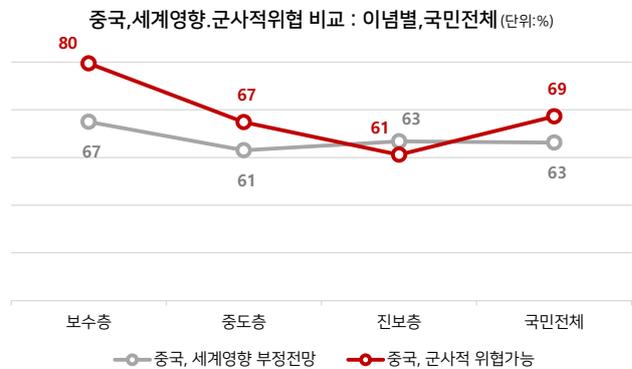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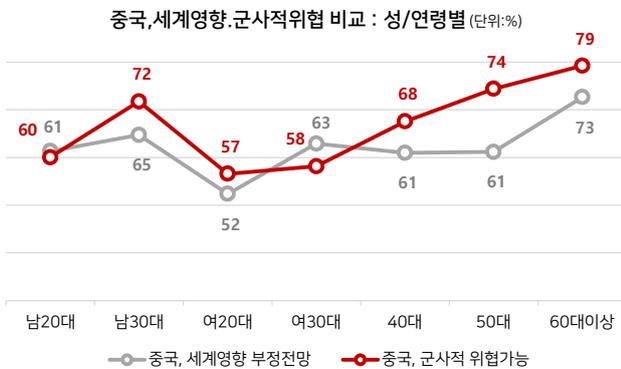


### Kstat Point

- ☑ 미중 패권경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함
- ☑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의 우려감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의 안보·경제적 협력을 중시하는 4050세대와 진보층도 같은 생각임
- ☑ 일본에 대한 생각은 계층별로 다른데 여자 30대와 4060세대의 우려감이 크고, 남자 2030세대와 여자 20대는 작음
  - : 한미일 3국 간의 동맹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일본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 때문으로 보임
  - : 즉, 여자 30대와 4060세대는 '반일 감정'이 매우 완고한 데 비해, 남자 2030세대와 여자 20대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으로 판단됨

## □ 추가분석 : 중국·일본의 '군사적 위협'과 '세계 미칠 영향' 밀접

-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은 앞서의 '세계에 미칠 영향 평가'와 밀접함
- 즉,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과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은 거의 비슷한 수치임
-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세계 미칠 영향, 부정 전망' 수치와 '중국, 군사적 위협 가능' 수치는 유사함
  - 대체로 '군사적 위협 가능' 수치가 더 높음
- 일본 역시 두 수치가 유사하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군사적 위협 가능' 수치가 더 높음
  - 여자 20대와 보수층만 예외적으로 두 수치 간의 격차가 큼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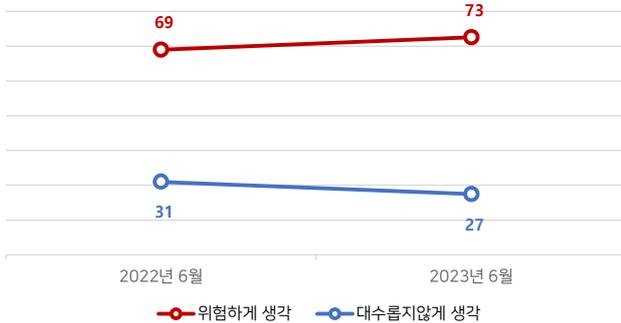
- ☑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비호감', '세계에 나쁜 영향 미칠 국가', '한국에 군사적 위협 가능성 높은 국가' 등 부정적임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식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4050세대와 진보층도 동일함
- ☑ 일본에 대한 인식 역시 '비호감', '세계에 나쁜 영향 미칠 국가', '한국에 군사적 위협 가능성 높은 국가' 등 부정적이 나, 중국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낮음
  - : 또한 남자 20대는 일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자 20대와 남자 30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 경향이 높음
- ☑ 향후 우리나라 외교 및 중국·일본의 대한민국 외교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 우리 정부 입장에서 최근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에 정면대응하는 것에 국민 다수가 지지할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시 국민 다수가 일본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생각

### 북한의 군사적 위협, '위험하다' 73%

- 국민 중 73%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27%로 조사됨
  - "선생님은 평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2022년에 비해 '위험하다'는 인식이 국민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
- 계층별로 '위험하다'는 응답을 2022년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위험하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특히 높아진 계층은 △여자 30대 △50대 △TK △주부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2022년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색으로 표기함
  - 검은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위험하다'는 응답이 하락한 계층은 △남자 20대 △서울, PK △학생, 은퇴.무직 △진보층 등임

북한 군사적 위협 인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북한 군사적 위협, '위험' 응답률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북한 군사적 위협, '위험' 응답률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북한 군사적 위협, '위험' 응답률 : 직업별,이념별 (단위:%)



#### Kstat Point

- ☑ 국민 다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그 생각이 더 강해짐
  - : 이러한 불안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무력 행동과 함께,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전세계적인 무력충돌 우려감이 더해진 결과로 보임
- ☑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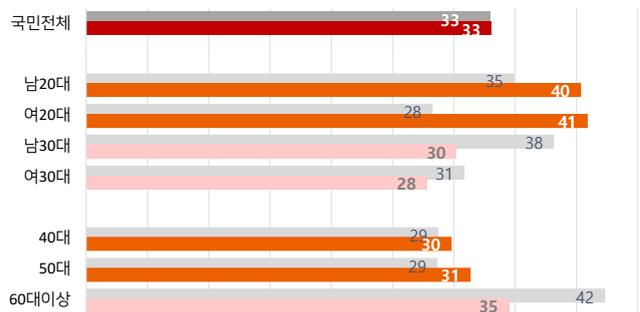
## □ 향후 북한 군사적 위협, '완화될 것' 낮아

-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에 대해 국민 중 55%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함
  - "앞으로 10년을 전망할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33%이고,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1%에 그침
- 2022년과 비교할 때, 그 수치가 거의 동일하며, 계층별로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 응답을 2022년과 비교하면 계층별로 상승/하락이 다름
-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 응답이 상승한 계층은 △남녀 20대 △4050세대 △서울, 경기.인천, 호남, TK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중도층, 진보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2022년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색으로 표기함
-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 응답이 하락한 계층은 △남녀 30대 △60대이상 △충청, PK △자영업, 블루칼라, 은퇴.무직 △보수층 등임

향후 10년 북한 군사적 위협 수준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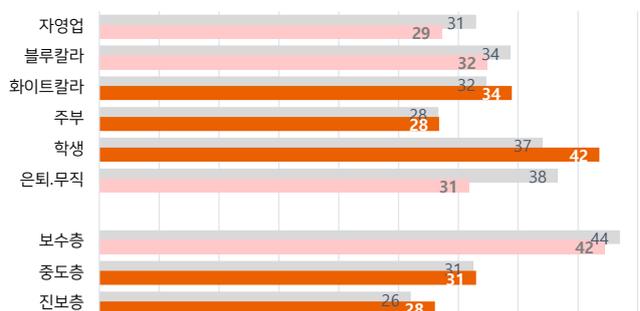
향후 10년, '위험해질 것' 응답률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향후 10년, '위험해질 것' 응답률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향후 10년, '위험해질 것' 응답률 : 직업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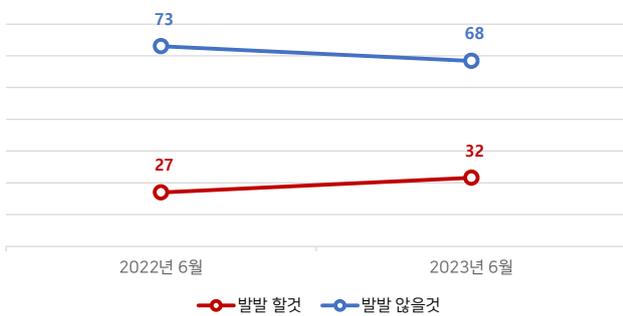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향후 10년을 전망할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함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20대 남녀의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음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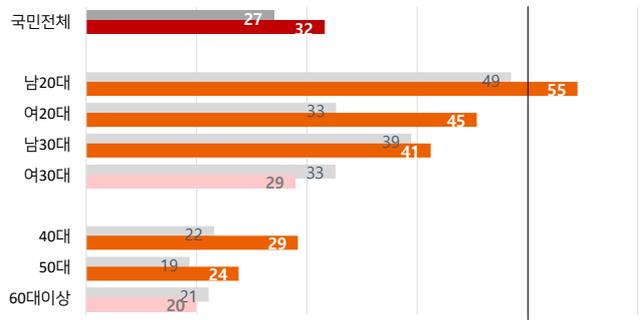
## □ 한반도 전쟁 '발발 할 것' 의견, 소폭 높아져

-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군사적 위협이 완화되기보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생각함
- 국민 중 68%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발발할 것'이라는 의견은 32%에 그침
  - "선생님께서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2022년과 비교하면, '발발 할 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상승함
- 대부분의 계층에서 '발발 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승했으며, 특히 많이 상승한 계층은 △남녀 20대 △40대 △서울, 충청, TK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2022년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색으로 표기함
  - 검은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발발 할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한 계층은 △여자 30대 △60대이상 △경기.인천 △자영업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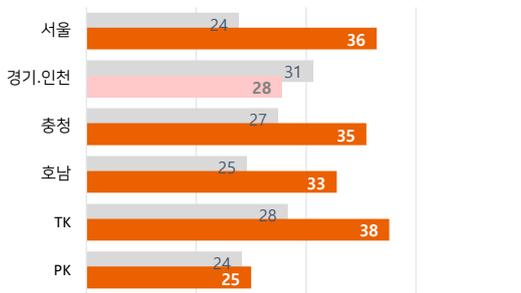
향후 20년내 한반도 전쟁 발발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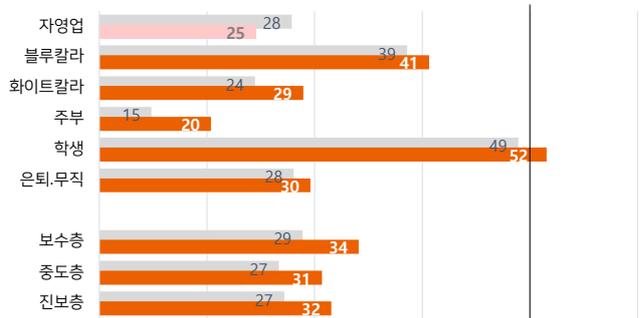
한반도 전쟁, '발발할것' 응답률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한반도 전쟁, '발발할것' 응답률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한반도 전쟁, '발발할것' 응답률 : 직업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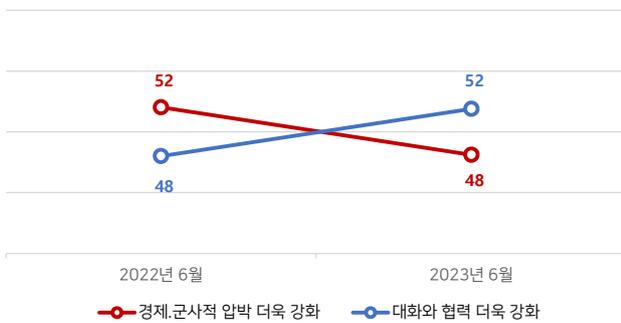
### Kstat Point

- ☑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4060세대는 낮게 보는 데 비해, 2030세대는 높게 보고 있음 (30대 여자 예외)
  - : 특히 20대 남녀의 전쟁 가능성은 각각 55%, 45%로 매우 높음
  - : 이러한 차이는 한반도 긴장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4060세대의 민감성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2030세대와 4060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차이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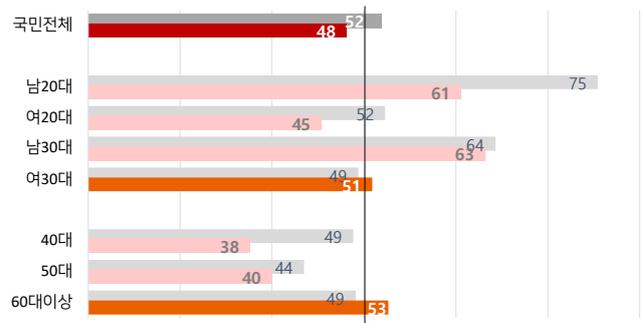
## □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는 방법, 강은 의견 지속 팽팽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8%)과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2%)이 팽팽함
- 2022년과 비교하면, ‘경제·군사적 압박’ 우세에서 ‘대화과 협력 강화’ 우세로 바뀜
- ‘경제·군사적 압박’ 의견을 계층별로 2022년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많이 하락한 계층은 △여자 20대 △40대 △충청, PK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2022년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색으로 표기함
  - 검은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이에 비해 상승한 계층은 △여자 30대 △60대이상 △호남 △자영업, 주부 △보수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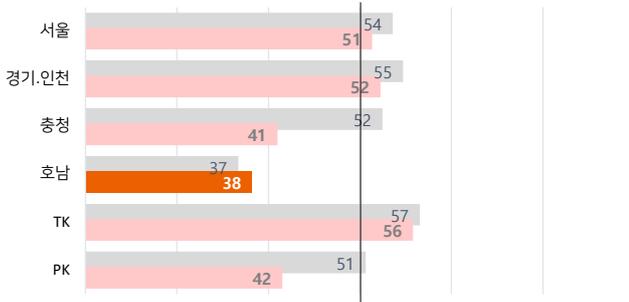
북한 군사적 위협 낮추는 방향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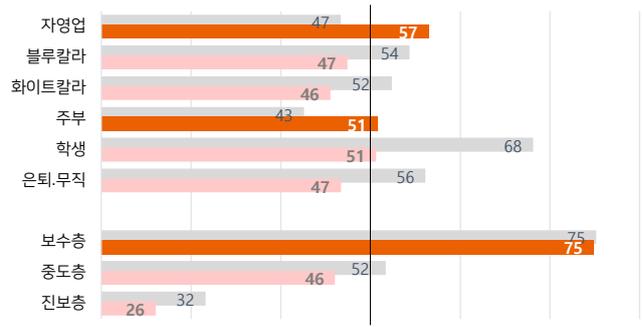
'경제·군사적 압박 강화' 응답률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경제·군사적 압박 강화' 응답률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경제·군사적 압박 강화' 응답률 : 직업별,이념별 (단위:%)



### Kstat Point

- ☑ 역대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낮추기 위해 강경책과 유화책 모두를 사용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지 못했다
  - : 윤석열 정부는 강경한 정책, 즉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채택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계층과 반대하는 계층이 다름
  - : 강경정책 우세층, △남자 20대, 남녀 30대, 60대이상 △서울, 경기.인천, TK △자영업, 주부, 학생 △보수층
  - : 유화정책 우세층, △여자 20대, 4050세대 △충청, 호남, PK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은퇴.무직 △중도층, 진보층
- ☑ 북한이 향후 핵 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킬 경우, 우리의 대응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간의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번 여론조사를 볼 때 그간의 보수 vs 진보 대립과는 다른, 세대 간 의견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78,79호] 발간 안내

7월말 여름 휴가 기간을 고려해 리포트 발간 일자를 조정했습니다.

케이스탯 리포트 78호와 79호는

각각 7월 6일(목요일), 20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7월 사회지표는 7월 1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